

## 지역에 필요한 청년지원정책 마련에 나선 지자체들

경상남도 청년정책추진단  
2022.7.2.

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  
청년일자리팀  
2022.7.3.

제주도 청년정책담당관  
청년활동지원팀  
2022.8.16.

### 경상남도, 청년 지역살이 및 지역정착 지원사업 추진

경상남도는 청년 인구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지역정착을 돕기 위해 청년 지역살이 및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. 도는 지역을 알아가는 것으로 일거리 찾기와 정착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. 특히 시·군이 각자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체험 및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도록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확보하였다.

먼저 1단계 사업인 청년 지역살이 프로그램에서는 타 지역의 청년들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도록 지원하여 지역 이주 희망 계기를 마련한다. 2단계 사업인 청년 지역정착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, 월세 등 지역정착 자금을 지원하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창업을 돕는다.

### 경기도, '우수청년공간' 선정하고 지원

경기도는 도내 7개 우수청년공간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. 도는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청년들을 위한 취·창업 상담과 문화행사에 필요한 복합공간인 시·군 경기청년공간을 대상으로 우수청년공간 선정 공모를 진행하였다.

그 결과 최우수 공간으로는 ▲김포시 창공 사우청년지원센터 ▲김포시 창공 구래청년지원센터 ▲안산시 경기내일스퀘어안산 상상대로 ▲양평군 청년공간오름 등 네 곳이, 우수 공간으로는 ▲과천시 청년공간 비행지구 ▲고양시 청취다방 ▲구리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선정되었다.

김포시의 창공 사우청년지원센터는 수시 수요 분석을 통해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, 양평군의 청년공간오름은 일자리 부족이라는 지역적 한계성을 극복하고 지역 청년들의 요식업 창업 요구를 반영한 점 등이 높게 평가되었다. 이들 최우수·우수 공간은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사업비로 각각 5,000만 원과 3,000만 원씩 지원받는다.

### 제주도, 지역 간 네트워킹 프로그램 '청년을 제주로' 진행

제주도도가 내외 청년들에게 지역의 경계를 넘는 협업 기회를 제공하는 '청년을 제주로'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.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 청년들과 도외 청년들은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,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한다.

참가자들은 '창업', '환경', '원도심' 세 가지 주제로 ▲서로의 경험과 생각을 공유하는 팀 빌딩 ▲프로젝트 방향성 설정을 위한 멘토링 ▲주제에 대한 인사이트 확장을 위한 트렌드 투어 등 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. 8월부터 2개월 동안 참가자들은 도 내외 청년 10명으로 팀을 구성하고, 팀별로 공동의 어젠다를 발굴해 협업 프로젝트를 기획·진행하며, 결과는 11월 성과공유회를 통해 공개된다. 제주도는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상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의 문제 해결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.